

## 지켜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추천인-김은수 /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비운 뒤 더욱 맑아진 풍경을 병실에서나마 지켜보는 일도 김남천 씨(54)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나빠진 시력은 희미한 빛만 존재할 뿐 이제는 무엇을 구분하고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천 씨에게 찾아온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즈음 신장(콩팥)에도 합병증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되어갑니다. 평생을 함께 해 왔지만 이제는 수족이 되어 모든 일을 도와주는 아내를 생각하면 이 모든 일에 더욱 말수가 줄어듭니다.

‘혈액투석’을 애써 막아보기 위해 병원을 다녔지만 선택할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다시 가슴을 죄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앞을 보기 힘든 자신을 이끌고 일주일에 3~4번 인공

투석기를 찾아 병원에 다녀야 하는 가족에게 다시금 짐이 되었다 되뇌입니다.

부인(53)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남편이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날, 이제 더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으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항상 필요하기에 앞일이 더욱 걱정됩니다.

그 많은 치료비와 네 식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당하면서 조금씩 생긴 부채는 어느새 반 지하 전세방을 팔아도 얼마 남지 않을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가에서 짐을 나르는 큰아들(28)은 비록 많은 벌이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든든한 가정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듬직하기만 한 큰 아들이지만 소아당뇨로 매일 인슐린을 챙겨 출근길에 나섭니다. 부모에게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으로 응어리진 아들이기에 고된 일을 마치고 밤에라도 간병을 하겠다고 찾아온 큰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김남천 씨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김남천 씨는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동정맥루 삽관 수술을 받고 지난 11월 중순경 퇴원했습니다. 입원기간 중 혈관외과, 안과, 신장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았으며, 향후 인슐린 투여와 혈액투석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시력을 되살리는 어려우며, 혈관질환이 있지만 수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큰 아들의 소득으로 생계비용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인은 김남천 씨가 근거리를 이동하는 데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낮 시간 두 아들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김남천 씨

와 혈액투석을 위해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고, 시각, 신장장애를 진단받았지만 지체 장애인이 진단된 것은 아니기에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김남천 씨에게도 지켜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든든한 아들의 뒷모습에서, 아내의 환하게 밝아올 미소에서, 그렇게 가족에게 찾아올 작은 행복을 무엇보다 또렷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그 희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남천 씨와 가족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올 작은 희망을 함께 지켜보아 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도움주실 곳 : 100061-56-056267 (국민은행 / 예금주 : 이윤희(부인))

문 의 : 02-3010-4089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함께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 □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http://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